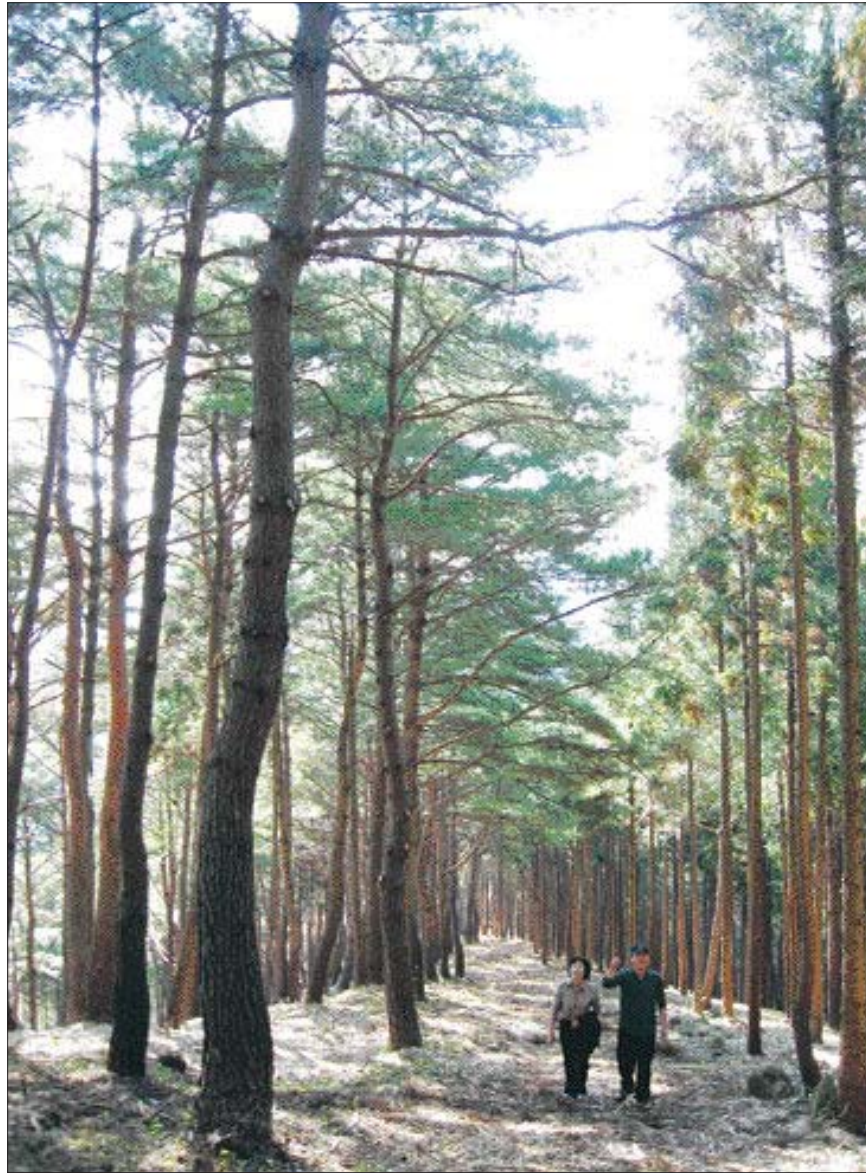


# 화순 모후산 '웰빙관광지' 만든다

## 郡, 530억 들여 인삼 시배지 복원 생태관광 테마파크 프로젝트 추진

화순 모후산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웰빙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화순군은 오는 2009년까지 5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 일대 2천300여ha에 고려인삼 시배지(始培地)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숨 쉬는 곳,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곳'을 모티브로 역사·생태·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발전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발 918m인 모후산은 고려인삼이 처음 재배된 곳으로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시배지(개삼터)가 발견됐다. 군은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고 이와 연계해 '산죽 산양삼(山養蔘)'을 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산양삼 생육 최적지인 남면 군유림에 2010년까지 12ha의 산양삼 재배포를 조성, 재배농가에 우량종자를 공급하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

또 70~80년생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모후산 숲길에는 아토피 체험장(산책로)이 조성되며, 50ha에 이르는 생태 숲에 13개 읍·면을 재현한 탐방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와 100여개의 객실을 갖춘 한옥 15채·통나무집 10동도 바위와 각종 나무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세워진다. 이밖에 매향 주변 경관림 조성, 모후산 상징물 건립, 숲속 승마체험장, 생태 자연공원 광장 조성, 유천리~모후산 케이블카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09년 7월 개장할 예정이다. 안영순(53) 군정발전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사계절 관광지를 개발, 지역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고려인삼 시배지인 화순 모후산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웰빙테마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생태 숲길.

## “생물의약 기업·연구소 유치 광주·화순 공동발전 더 노력”

### 취임 1돌 전완준 화순군수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아닌 진정한 화순발전을 위한 군정(郡政)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전완준(48) 화순군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며 활짝 웃었다. 전문경영 CEO 출신인 전 군수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전 리스크 요인을 줄였다. 또 생물의약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한편 화순의 미래 발전전략인 '비전 1030'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전 군수는 “2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개천사향(문제집)이 눈에 보인다”며 “획일적인 상명하달식이 아닌 우리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내 주위 10리 밖까지 가난한 사람을 두지 마라’는 경주 최부자 일화를 예로 들며 광주시와 광주 근교 군의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군수는 “BT(생명공학)와 CT(문화산업기술)산업을 활성화시켜 화순 융성(隆盛)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

## 농촌개발 등 주요사업 추진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

### ‘화순발전 1030’ 이란

‘비전 1030’은 미래 화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발전전략으로 민선 4기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비전 1030 추진팀)에서 자체 기획했으며, 경제·농촌개발·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 등 66개 단위사업이 망라돼 있다. 사업비는 4년간에 걸쳐 3천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포대인 ‘비전 10’은 ▲인구 10만명 만들기 ▲군민소득 10% 증대 ▲전국 10대 살기좋은 군 만들기 등이며 전략 완성 단계인 ‘비전 30’은 ▲군 자립도 30% 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 증대 ▲사회·복지, 교육·문화여건 30%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순군을 크게 동·서부 2대 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친환경, 서부권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바이오(BIO) 클러스터와 메디컬 클러스터, 문화관광 등 3개 축(軸)을 성장동력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메디컬 특화단지 조성, 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다. 화순군은 ‘비전 1030’ 추진을 통해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 장흥군 ‘하수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

### 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 郡, 민자 837억 투입 톤 등 4곳 내년 착공

장흥군이 하수종말처리장(BTO)과 하수관거정비(BTL)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하수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장흥군은 이를 위해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최근 환경관리공단과 ㈜장흥친환경주식회사를 선정, 실시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에는 군비 260억 원과 민자 등 총사업비 837억 원이 투입돼 장흥읍을 비롯한 관내 4개 면에 하루 처리용량 6천400t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85km가 정비된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먼저 투자해 건설한 후 위탁운영하고 장흥군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20년간 나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초기사업비 조달 부담을 덜게 됐다. 장흥군은 연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께 착공, 2010년 말까지 준공해 정상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정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두 사업을 함께 발주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장흥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수질환경이 개선되고 장흥 인근 해역이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보성녹차 ‘농식품 파워브랜드’ 우수상

보성 녹차가 농림부가 주최하는 올해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전통식품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파워브랜드’는 리서치 기관의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조사(1차 평가), 한국식품연구원의 인지도 조사와 품질 검사, 현장 평가(2차 평가)를 실시한 뒤 서면 평가(3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보성녹차’는 이같은 3가지 종합검증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브랜드와 부가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녹

차상품들 중에 보성녹차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보성녹차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제 제 1호인 보성녹차는 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선정(농림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선정(농림부), 보성녹차산업특구지정(재경부) 지정 등 최고 품질의 녹차로 육성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다. /보성=안규익기자 giahn@

## 나주시의회 ‘관광성 외유’ 고민

### 의원 2명 불참의사 밝혀

나주시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 강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나주시의회는 당초 초선의원 5명과 시 공무원 3명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 외유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박모, 김모 등 두 소속 의원 2명이 외유 불참을 전격 통보해 참가 시의원이 3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불참사유로 “관광성 외유라는 지역사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궤석중인 부의장직 선출을 놓고 야기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간 갈등의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회 모 의원은 “의원 수 보다 외부인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강행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외유 취소가

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 6월에는 지역사민사회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섬연수를 다녀오고 2005년에는 그 전년도에 자진 반납했던 외유를 강행하기도 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해남 쌀 ‘땅끝 햇살’ 흡소핑 판매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인 ‘땅끝 햇살’이 지난 24일 국회의사당에서 흡소핑 판매를 통해 1억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 행사는 ‘땅끝에서 DMZ까지 우리 농촌에 희망 선물하기’라는 특별기획으로 농수산흡소핑 채널을 통해 1시간 동안 생방송됐다. 땅끝 햇살은 이날 20kg 3천여포가 주문분당 20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임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